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김평원(서울대)

차 례

1. 서론
2. 사단칠정 논쟁의 교육적 활용
3. 매크로 토론의 교수·학습 모형
4. 매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실제
5. 결론

1. 서론

서양의 토론 문화가 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거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Nisbett, 2005).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토론 교육이 발달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토론 교육을 통해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의 토론 교육은 부정적인 토론 문화를 개선해야함은 물론(이상철 외, 2006 : 260~262, 박재현, 2004 : 299~313), 토론의 형식과 내용 측면 모두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 이 논문은 제23회 한국화법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필자의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2010)’의 후속 연구로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 S대학교 국어화법 수업과 서울 M고등학교 영재 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용한 후 나온 결과물이다.

2 화법연구 18

토론의 형식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논증 수준을 높여 토론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실제 토론을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변형한 교실 토론(교육 토론)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후자는 톨민(Stephen Toulmin)의 논증 모형과 같은 논증 전략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이상철, 2006 : 214~215).¹⁾

상대의 주장을 듣고 본격적인 반박에 앞서 질문을 주고받는 미국 교차 조사 토론학회(CEDA :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방식의 토론(이하 CEDA 방식 토론)은 그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토론 대회는 물론 교육 토론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CEDA 방식 토론의 구조

CEDA 방식 토론은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질문하는 절차를 두 번 주고

1) 교실 토론(class debate)은 교실의 상황, 수업의 특성, 학생들의 능력과 인원수를 고려하여 토론의 형식을 조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형식이 가능하다. 토론 대회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교실 토론을 토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규칙과 시간을 조정할 경우를 일컫는다(이정옥, 2008 : 143).

받은 후, 숙의 시간을 거쳐 반박을 주고받는 간단한 구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발언 순서를 찬성 측에서 시작해서 찬성 측으로 끝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순서가 어긋나게 되고, 팀 내 토론자의 순서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매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²⁾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이해와 표현이 각각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토대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표현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경청(이해)은 말하기(표현)를 염두에 둘 때 가능하다. CEDA 방식 토론과 같은 역동적인 구조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기능이 작용하고, 표현을 하면서도 이해했던 내용을 인출하는 복잡한 기능이 작용한다.

필자는 CEDA 방식 토론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의 토론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토론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CEDA 방식 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과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이라는 방법론을 구안하였다. 마이크로 토론은 CEDA 방식 토론의 각 단계를 10분 내외로 축소하여 토론의 절차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며(참고 : 2010b), 매크로 토론은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한국형 논쟁 문화를 미국의 CEDA 방식 토론과 접목한 것이다.³⁾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매크로 토론은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8년간 9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펼쳤던 사단칠정

2) 토론에서는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논박하는 토론자의 발언은 더 이상 상대측에서 논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CEDA 방식 토론에서는 주장의 정당성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찬성 측의 부담을 고려하여 찬성 측에게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게 된다. 이는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다소 불리하기 때문이며, 다소 유리한 최종 발언권을 찬성 측에 줌으로써 양 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이라는 방법론을 구안하여 1년간 대학의 국어 화법 수업과 고등학교 화법 수업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효과성을 점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부 단계를 수정하면서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四端七情) 논쟁과 같은 텍스트 기반 토론이다.⁴⁾

2. 사단칠정 논쟁의 교육적 활용

2.1.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의 개요

사단칠정 논쟁은 영남 출신의 퇴계 이황과 호남 출신의 고봉 기대승이 천리 밖 먼 거리를 두고 1559년부터 8년 동안 9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대장정 토론이다. 이 논쟁은 조선 성리학이 중국 성리학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한국 철학 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윤사순, 1982 : 194).

퇴계와 고봉은 단 9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1558년 12월, 퇴계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보낸 이후 퇴계가 타계할 때까지 13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편지 교류를 하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100여 통 중에서 사단칠정 논쟁은 9통이다(김영두, 2002 : 601~605).⁵⁾

사단칠정 논쟁은 퇴계의 이웃이던 정지운이 ‘천명도설(天命圖說)’을 만

4) CEDA 방식 토론은 ‘상호 질의 토론’ 또는 ‘교차 조사 토론’ 등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마다 용어가 달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외래어 ‘세다(CEDA)’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CEDA 토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차 조사학회 토론’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CEDA 방식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CEDA’라는 외래어를 사용함에 따라 수식어 역시 ‘축소’, ‘확대’, 라는 말 대신 ‘마이크로(Micro)’, ‘매크로(Macro)’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5) 이황의 ‘퇴계집(退溪集)’과 기대승의 ‘고봉집(高峯集)’ 모두 사단칠정을 논한 편지들을 수록하고 있으나,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수록한 ‘퇴계집’과는 달리 기대승의 ‘고봉집’은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 부분에서 편지 원문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사단칠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황이 기대승에게 써 놓고도 보내지 않았던 부분만을 ‘퇴계집’에서 발췌하고 주된 텍스트는 ‘고봉집’의 ‘양선생왕복서’를 활용하고 있다.

들어 퇴계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시작되었다. 정지운은 사단은 항상 선(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理)’에서 시작되고, 칠정은 알맞으면 선이지만 모자라거나 지나치면 악이기 때문에 ‘기(氣)’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퇴계는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4단은 理(리)가 움직여서 드러난 것이고 7정은 氣(기)가 움직여서 드러난 것이라고 수정하였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사단칠정 논쟁은 자신의 생각에 이견을 피력한 기대승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황이 기대승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수정한 이론에 관한 의견을 물으면서 시작된다(1559년 1월). 여기에 기대승이 이황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입론하고(1559년 8월), 이황 역시 본격적으로 이를 반박하는 입론을 하게 된다(1559년 10월).

해가 바뀌어 기대승은 이황의 입론에 반박을 하고(1560년 8월), 이황 역시 이를 재반박 한다(1560년 11월). 다시 해가 바뀌어 기대승이 다시 반박을 하고(1561년 1월), 또 다시 해가 바뀔 때까지 장고(長考)에 들어간 이황은 반박 편지를 썼으나 부치지 않고 사단칠정 논쟁을 중지하자고 선언한 글을 보낸다(1562년 10월).

그 뒤 4년간의 숙의 시간을 가진 뒤 기대승은 그동안의 논쟁을 정리한 후설과 총론을 지어 이황에게 보냄으로써 중지되었던 논쟁의 불씨를 살리고자 한다(1566년 7월). 하지만 이황은 기대승의 총설과 후설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결국 자신의 입장은 굽히지 않은 채 느낌만을 전하면서 논쟁은 마무리 된다(1566년 10월). 이상의 논쟁 과정을 기대승의 개인 문집인 고봉집(高峯集)에 수록된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단칠정 논쟁의 전개

편지	단계	발신	수신	내용
1	전반전 (1558~1562)	이황	기대승	그대의 반론을 이렇게 고쳤다.
2		기대승	이황	퇴계에 올린 4단7정설
3		이황	기대승	사단칠정이 이기로 나뉜다고 한 논설
4		기대승	이황	퇴계에 답해 사단칠정설을 논한 글
5		이황	기대승	논의의 시말을 드러내고자, 제1서를 고친 글
6		기대승	이황	고봉이 사단칠정을 다시 논한 글
7		이황	기대승	사단칠정 논변의 어려움(논쟁 중지 선언) (6번 편지에 대한 답은 부치지 않음)
숙의 기간 (1562~1566)				
8	후반전 (1566년)	기대승	이황	후설과 총설을 함께 올립니다.
9		이황	기대승	총설과 후설을 받고서, 그대의 편지를 깊이 생각하며

2.2. 사단칠정 논쟁의 특징

사단칠정 논쟁은 사단인 이(理)와 칠정인 기(氣)가 구분된다는 퇴계의 주장과 구분되지 않고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된다는 고봉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단칠정 논쟁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지만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철학적인 깊이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퇴계와 고봉의 논변은 지극히 구체적인 감정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해명하려함으로써 가닥을 잡기란 쉽지 않고, 인식의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조차 언어적 공방이 오가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김기현, 2006 : 650).⁶⁾

6) 사단(四端)이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며, 칠정(七情)이란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을 말한다. 이황은, 4단이란 이(理)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칠정이란 기(氣)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과 기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대승(奇大 升)은 이와 기는 관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8년간 9통의 편지를 통해 주고 받은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은 누구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보다는 논쟁 과정과 구조에 의미가 있다.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주자학의 심성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른 이견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논쟁을 통해 객관화된 사고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에 큰 의미가 있다.

사단칠정 논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의 견해를 용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황과 기대승은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전제는 절대 바꾸지 않고 각각 주리론과 주기론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게 되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理)와 기(氣)와 연결 짓고 사단은 ‘완전한 선’으로 칠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대승은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므로 사단과 칠정, 리와 기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 기의 작용으로 보았다.

둘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비선형(Non-Linear) 방식의 논쟁이라는 점이다. 논쟁이 한 쪽 방향으로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로 회귀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논박을 재확인하면서 천천히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방식이다. 기대승이 이황에게 자신이 보냈던 편지를 다시 보내달라는 민망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아(1560년 8월, 高峯集-兩先生往復書), 이황과 기대승이 처음부터 비선형 방식으로 논쟁을 기획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쟁은 면대면이 아니라 비선형 방식이었기에 수준 높은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2] 편지를 되돌려 달라는 기대승의 글

연전(年前)에 삼가 영감의 좌전에 몇 통의 글을 써 올릴 때 모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마는 다시 부분(副本)을 남겨 두지 않았으니, 뒤에 생각해 보건대 너무도 공손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하교를 받고도 전에 올렸던 글의 지의(指意)를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여 자못 왕복하는 뜻을 잃었으니 더욱 송구합니다. 만약 제가 올린 글을 없애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거든 찾아서 돌려주시거나, 시사(侍史)에게 등사(謄寫)시켜 부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논의 전말(前未)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에서일 뿐입니다.

—기대승이 이황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셋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쟁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발언 시간을 제약하는 실시간 토론과는 달리 이황과 기대승은 서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8년간 논쟁을 계속하였다. 이황은 기대승이 문제 제기(問題提起)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주희의 책을 뒤져보고 심사숙고한 후 수정한 학설(學說)을 보내면서 논쟁을 시작한다.⁷⁾ 기대승도 생각을 글로 쓰면 잘못될까 걱정스러워 감히 쓰지 못했다는 표현(又

7) 사단이 드러나는 것은 순순히 이치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니 선하지 아니함이 없고, 칠정이 드러나는 것은 이치와 기운을 아울러서 드러나는 것이니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慮筆之於書,易致差謬不敢焉)을 하는 등 편지 곳곳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편지를 쓴 흔적이 엿보인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면할수록 논의의 수준은 더욱 탄탄해진다(高峯集-兩先生往復書).



[그림 3] 심사숙고함을 드러내는 기대승의 편지

특히 이황이 논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한 뒤(1562년 10월, 4년간의 숙의 기간을 가진 뒤 작성한 기대승의 후설과 총론은 이전까지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완성도 높은 텍스트이다. 이처럼 사단칠정논쟁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함으로써 함께 창작하는 공동 텍스트로 발전하였다. 비록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 합치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대의 논리를 서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토론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

매크로 토론은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 구조를 차용한 것으로 이전 단계를 계속 되돌아보며 한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의 토론이다. 이는 시간을 제한하면서 두는 바둑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천천히

8) 현재 토론 교육에서 활용하는 토론 형식들이 주로 미국에서 도입한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논증 문화를 토론 교육의 전략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는 바둑으로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서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처음부터 놓아 보는 ‘복기(復棋)’가 있듯이, 매크로 토론은 이전 단계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다음 단계로 천천히 진행하는 교육용 토론이다.⁹⁾

매크로 토론을 토론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매크로 토론 기반 학습(MDBL : Macro debate Based Learning)은 ‘토론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debate)’보다는 ‘토론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bate)’을 강조한다. 매크로 토론은 실제 사용하는 토론 형식이라기보다는 토론의 논증 구조를 심도 있게 탐색해 만든 교육용 토론 형식이기 때문이다.¹⁰⁾

3. 매크로 토론의 교수·학습 모형

3.1. 매크로 토론의 특성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이 토론의 절차를 익히기 위해 실제 토론을 축소한 것이라면,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은 토론의 논증 구조를 익히기 위해 실제 토론을 텍스트를 기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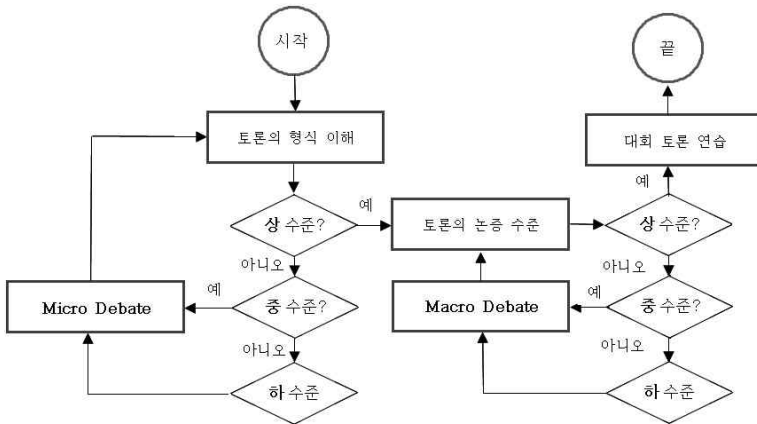
9) 교육 토론은 흔히 ‘교실 토론’이라고 하며 실제 토론과는 달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정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교실 토론은 다양한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론으로서의 의미와 토론을 훈련하는 약식 토론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각 교과와 지식을 종합하기 위해 토론을 활용하는 토론식 수업은 전자에 해당하고, 국어 시간(화법 시간)에 공부하는 약식 토론은 후자에 해당한다. 토론 대회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교실 토론을 토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규칙과 시간을 조정할 경우를 일컫는다(이정옥, 2008 : 143).

10) 매크로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허 등록업무이다. 특허 출원자가 자신의 기술이 창조적임을 명세서에 적어 보내면,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심사하고 선행기술을 검토한 후 특허 거절 사유를 적어 답변한다. 출원자는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심판관은 이를 다시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면서 특허 거절 통보를 다시 보낸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2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출원자와 심사관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논증을 주고받게 된다.

[표 2] 마이크로 토론과 매크로 토론

	마이크로 토론	매크로 토론
목적	토론의 절차를 익힘	토론의 논증 구조를 익힘
변형	실제 토론 시간을 축소	텍스트 기반 토론으로 실제 토론 시간을 확대
방식	선형(Linear)	비선형(Non-Linear)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이 실제 토론 대회 상황을 압축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 후 수정·보완하여 다시 토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인데 반해,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은 텍스트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간접 토론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하루 이상 천천히 분석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마라톤(marathon) 방식의 토론이다.



[그림 4] 토론 교수·학습의 체계

마이크로 토론은 토론의 형식을 이해하는 수준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의 형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는 과도기적 토론이다. 마이크로 토론을 반복하면서 토론의 형식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에 이르게 되면 논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

한 매크로 토론 단계로 이행한다. 천천히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매크로 토론을 통해 논증 수준이 ‘상’에 이르면 본격적인 대회 토론 준비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4]는 마이크로 토론과 매크로 토론이 실제 대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매크로 토론에서는 CEDA 방식 토론의 모든 단계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각 단계를 하루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텍스트로 만들어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도 있다. 매크로 토론 과정은 개인적인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매크로 토론의 가장 큰 장점은 토론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전 토론 단계를 회귀하면서 논증 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할당할수록 더욱 탄탄한 논박을 할 수 있다.

매크로 토론의 매체는 문어(文語)이지만 표현은 구어(口語)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문서 형태로 오가는 논증이지만 되도록 구어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수준 높은 CEDA 방식 토론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매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절차

매크로 토론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은 교차조사 과정을 면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전체 단계가 16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하루에 한 단계를 진행하고 숙의 기간을 4일 정도 주어야하기 때문에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황과 기대승과 같이 직접 텍스트를 교환하는 방식을 권장하지만 이메일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방식도 가능하다.

[표 3] 매크로 CEDA 방식 토론의 단계

단계		특징
1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제1토론자 vs 반대 측 제2토론자
2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질의	
3	찬성 측 제1토론자의 답변	
4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	반대 측 제1토론자 vs 찬성 측 제1토론자
5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질의	
6	반대 측 제1토론자의 답변	
7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제2토론자 vs 반대 측 제1토론자
8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질의	
9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답변	
10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입론	반대 측 제2토론자 vs 찬성 측 제2토론자
11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질의	
12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답변	
숙의 기간		
13	반대 측 제1토론자의 반박	
14	찬성 측 제1토론자의 반박	
15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반박	
16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반박	

매크로 토론의 교차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범위는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매크로 토론을 진행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또 다른 입론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의 입론과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 매크로 토론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4 화법연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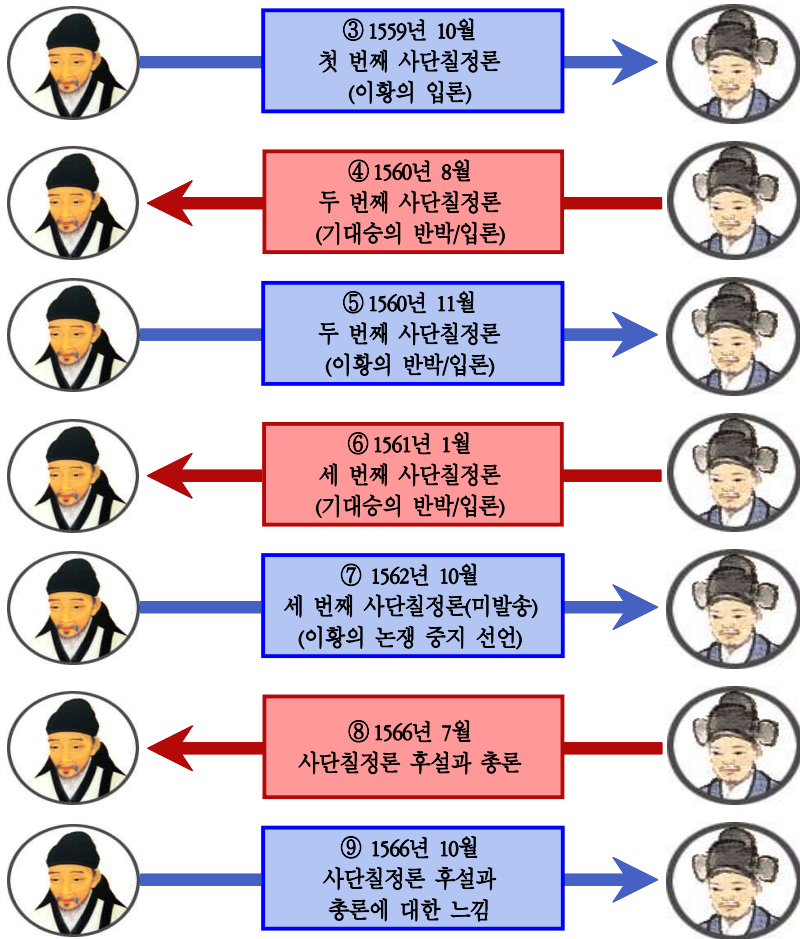
[표 4] 매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절차

단계	주요 활동	내 용
1단계	설명	요약자를 활용하여 CEDA 방식 토론의 원리와 절차를 설명한 후 이를 확대한 매크로 토론에 대해 학습한다.
2단계	모델링	이황의 기대승의 논쟁 구조를 설명한다.
3단계	토론 준비 단계	토론 주제를 숙지한 후 팀별로 모임을 갖고 토론을 준비한다.
4단계	매크로 토론의 진행	매크로 토론을 실시한다.(20일)
5단계	피드백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단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매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첫 번째 단계는 CEDA 방식 토론과 이를 확대한 매크로 토론에 대한 이론 학습이다. 교사는 CEDA 방식 토론의 개념, 원리, 절차를 설명한 후 이를 매크로 토론으로 확대하여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매크로 CEDA 방식 토론의 모델을 모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한 CEDA 토론의 개념을 확인하면서 적용해보는 것으로 미리 제작된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 구조 자료를 보면서 개념, 원리, 절차를 확인하게 된다. [그림 5]와 같은 시각 자료는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5] 사단칠정 논쟁의 전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교수·학습을 마치고 매크로 토론에 입문한 학생들은 설명 단계와 모델링 단계를 합쳐 1차시를 배당하면 되지만 매크로 토론부터 입문하는 학생들은 2차시 이상이 소요된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차시를 조정할 수 있다.¹¹⁾

11)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대학생과 상위권 고등학생의 경우는 1차시에 CEDA 방식 토론의 형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토론 준비 단계로서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토론 주제에 대해 조사한 후 토론 계획을 짜게 된다. 보통 1차시를 배당하면 되지만 실시간 토론과는 달리 매크로 토론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규 수업 시간에 준비 시간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매크로 토론 단계로서 학습자는 하루에 한 단계씩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전 단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 논리를 만들어가게 된다. 한 팀은 2명이지만 자료 조사 역할을 맡겨 많은 인원이 스태프로 참여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매크로 토론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토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지연되는 팀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토론 진행을 독려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피드백 단계로 대표 학생들이 자신들의 참여했던 토론에 대해 자평하는 시간을 거친 뒤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1차시를, 모든 학생에게 토론 대해 평가하도록 할 경우는 2~3 차시가 소요된다.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3분 이내로 말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매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실제

4.1. 매크로 토론의 사례

본장에서 소개하는 매크로 토론은 대학 국어화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주고받은 논쟁 텍스트로서 첫 번째 입론, 질의, 답변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1.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은 미리 준비해온 입론서를 읽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실제 토론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매크로 토론과의 차이는 없다. CEDA 방식 토론의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는 개념을 정의한 후 이를 토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된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욕을 공론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단어인 공론(公論)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공론이란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 또는 그 의논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론화란 어떤 문제를 공론이 되게 하는 것 또는 어떤 문제가 공론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모두 포괄적으로 ‘공론장’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사례로는,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¹²⁾

다음으로 욕의 공론화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욕의 공론화는 욕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 논의에서 우리의 욕 문화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은 배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욕의 무분별한 사용’과 그 ‘사용 빈도의 증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BS스페셜, 욕에 중독된 10대? 어른들이 더 걱정이다》라는 포스트를 통해 97% 가량의 초등학생들이 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이 그 욕설의 원래 뜻을 모른 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약 95% 이상의 청소년들이 욕설을 사용하며, 이 비율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따라서도 큰 차이 없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일상화 된 욕 문화는

12) 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의 입론이지만 욕보다는 공론에 치중해서 입론을 하고 있다. 이는 토론을 주도한 대학생이 사회과학 전공자로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관찰되며, 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올 3월에 방영된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 방영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청자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또 그것을 촉매제로 하여 10대들의 욕 문화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작성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주간조선에 게시된 기사 ‘연령대별 생각 욕 좀 하면 어때! Vs 요즘 애들 무서워……’ 및 경남도 민일보 기자가 2009년 3월에 작성한 ‘KBS스페셜, 욕에 중독된 10대? 어른들이 더 걱정이다’라는 포스트는 TV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파급된 대표적인 공론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론화 사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의 공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욕 문화에 대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 생각 욕 좀 하면 어때! Vs 요즘 애들 무서워……’에서는 별 뜻 없이 장난처럼 욕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성인의 관점과 격해진 감정을 욕으로 대신 표현하는 성인을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욕을 쓰는 이유가 다름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의 올바른 쓰임 혹은 어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평소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욕의 뜻을 모르고 쓰는 것과 알고 쓰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KBS 스페셜 에서도 아이들이 욕의 의미를 알고 나서 욕설을 일상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쓰는 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상스러운 말을 써왔는가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를 자각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태 인식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수면 위로 꺼내어 비판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1.2.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질의

반대 측 첫 번째 질의는 찬성 측의 입론을 분석하여 개념과 논 의 범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임해야 한다. 특히 반대 측에서 준

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찬성 측에서 논의 범위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 측의 입론을 수정하여 찬성측이 정한 범위 내로 좁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시간 토론에서는 교차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과 반대 측 입론을 준비하는 사람이 메모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매크로 토론에서는 찬성 측의 입론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으므로 큰 부담은 없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찬성 측에서는 본 논의에서 우리의 욕 문화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은 배제하기로 하셨는데 욕 공론화와 관련된 논의의 장에 욕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 배제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욕의 무분별한 사용’과 그 ‘사용 빈도의 증가’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신다고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결국 욕을 공론화해서 욕 사용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요약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1.3. 찬성 측 제1토론자의 답변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첫 번째 질의는 사실 개념과 논의 범위에 관한 이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성 측의 첫 번째 답변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초 입론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개념과 논의 범위를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답변해야 한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론에서 제시한 개념과 논의 범위를 고집하면 토론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방에게 논파당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욕을 공론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일단 욕 사용 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대 측에서 욕 사용 문화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견이 있다면 토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논쟁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야 학교에서 공론화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¹³⁾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욕의 무분별한 사용’과 그 ‘사용 빈도의 증가’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룬다고 선을 그은 까닭은 욕을 공론화해야 하는 이유가 욕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의 긍정적인 기능, 예를 들어 카타르시스의 기능, 친숙한 사이에 주고받는 교감 형성, 향토적 속성 등을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저희는 우리의 욕 사용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공론화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1.4.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은 찬성 측에서 제시한 개념과 논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토론의 중요한 특징은 자료 조사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계를 거둬할수록 논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시간 토론에서는 미리 준비한 자료는 구체적일 수 있지만 상대팀의 예상치 못한 문제 제기에 관한 근거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론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공식적인 공간이나 TV, 신문 같은 대중매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만을 공론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장이란 공식적인 공론(公論)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 의견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론(共論)이 생산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떤 공간도 공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공론장의 기능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좋은

13) CEDA 방식 토론은 정책 토론의 성격을 지니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쟁점을 사례로 들어 논증하는 방식도 중요한 답변 전략이다.

나쁘든 행위와 언어로써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인간의 사상에 빛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그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공론장이라는 것이 건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따라서 욕에 대한 공론을 생산할만한 사회적 토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공론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했듯이 평등한 발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이것을 이세고리아(Isegoria)라고 불렀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런 공론장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또 그것이 권력자의 편의대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청소년의 목소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소수자들은 평등은커녕 발언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공론장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욕의 공론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욕설 문제는 국민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청소년의 일상화된 욕설 및, 사이버 공간상의 욕설과 비속어에 관한 논의만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욕의 공론화를 주도하는 성인들 역시 청소년들 못지않게 현실에서 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했던 성인과 청소년의 권력적인 불평등의 이유 때문에 욕의 공론화에 대한 초점은 청소년들 쪽으로만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들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욕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욕을 하나의 습관과 유행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에게 진지한 발언권과 사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그들에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일종의 사치이며, 따라서 성인은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에 관한 논의를 성인이 알아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욕 사용이 그러한 경향을 일정 정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하향식 공론화는 실제 공론화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¹⁴⁾ 결과적으로 왜 욕을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먼저 공론화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야 하며, 그들의 관점을 포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공론화를 통해 성인들 스스로의 욕설에 대한 자정 작용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인터넷상의 욕설 사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고 많은 물리적, 법적 규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금칙어 입력 금지 그리고 신고를 통한 강제탈퇴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할 말을 했다고 인정받는 실정이며, 인터넷에서 점잖게 말하자고 주장하면 도리어 사람들은 짜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라면 사이버 상에서의 욕설의 공론화를 통해 도리어 욕설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식의 욕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¹⁵⁾

이 때문에 결국 저희는 욕설에 대한 공론화는 한국 사회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논쟁과 부작용만 더 키우는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 매크로 토론의 효과

4.2.1. 인지적 측면의 효과

CEDA 방식 토론은 미리 준비해 온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논증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좁혀져야 한다. CEDA 방식 토론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회 토론 현장에서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경우가 많다. 심사관들이 대본을 보지 못하게 할 경우 논증 수준이

14) 찬성 측에서 정의한 공론화 개념을 상향식 공론화와 하향식 공론화로 더욱 세분화하면서 논증하고 있다. CEDA 방식 토론의 즐거움은 이처럼 단계를 거듭할수록 논의가 좁혀져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15) 찬성 측 입론에서는 욕 공론화 논의에서 욕의 순기능과 같은 것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욕 공론화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CEDA 방식 토론은 단계를 거듭할수록 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좁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CEDA 방식 토론에 입문하는 학생들의 실시간 토론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좁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크로 토론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공격하는 이른바 ‘논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리적으로 탄탄한 CEDA 방식 토론의 흐름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크로 토론은 상대방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전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후반부로 갈수록 논리가 더욱 탄탄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실시간 토론에서 논증이 빈약했던 학생들도 매크로 토론에서는 비교적 탄탄한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4.2.2. 정의적 측면의 효과

면대면 토론과는 달리 매크로 토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많은 생각을 통해 감정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로 다듬어지게 된다. 실제 매크로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특별히 교육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격식을 갖추어 설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편지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 자체가 논쟁에 임하는 태도 측면의 교육적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젊은 학자인 기대승이 당시 최고 학자였던 이황과 논박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도 면대면 토론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긴 시간동안 천천히 논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황은 젊은 학자의 주장을 건방진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일부 틀렸음을 인정하였다.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 사례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의적 측면의 토론 교육에서 귀감이 된다.

5. 결론

CEDA 방식 토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 시키려하는 논박형 토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한 형식이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질문하면서 실시간으로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가는 CEDA 방식 토론의 역동적인 진행 과정은 마치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사용 방법이 복잡하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EDA 방식 토론은 절차를 숙지하고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또 절차를 숙지했다고 해서 누구나 토론의 후반부로 갈수록 논리가 더욱 탄탄해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구자가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과 매크로 토론 방식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과도기적인 교육 토론으로 실제 CEDA 방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입문하게 해주는 토론 교수·학습 모형이다. 토론의 논증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지속적인 형식을 통해 논증 구조를 친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크로 토론은 바둑에 있어 복기와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CEDA 방식 토론은 특수한 공적 말하기로서 상황적 불안(state anxiety)을 유발하게 된다.¹⁶⁾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겪은 말하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누적된 학생이나(성격적 불안), CEDA 방식 토론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잦은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도(상황적 불안) 매크로 토론에서는 능숙하게 자기의 논리를 펴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매크로 토론 시간적 압박과 면대면 토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크로 토론을 통해 토론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도록 유도한 후 자연스럽게

16)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흔히 성격적 불안(trait anxiety)과 상황적 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성격적 말하기 불안이 심한 학생들은 CEDA 방식 토론을 일종의 ‘공포 자극’으로 치부할 정도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시간 토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CEDA 방식 토론의 내용적인 측면을 교육하기 위해 실제 CEDA 방식 토론을 20일이 넘는 기간으로 확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매크로 토론의 효과를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하고 교수자의 구체적인 피드백 전략을 제공하는 선까지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현(1992), 퇴계의 사단 칠정론, 사단칠정론, 서광사. 49~68.
- 김영두(2003),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 김평원(2010a), 말하기 평가의 분석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김평원(2010b),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9, 국어교육학회, 281~312.
- 김평원(2011), 말하기 불안의 분석 모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박재현(2004), 한국의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9, 국어교육학회, 289~318.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8),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이상철·백미숙·정현숙(2006),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윤사순(1982), 한국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한국 사상의 심층 연구, 이을호 외, 194.
- 이경현(2009), 주제중심 토론 극화 수업의 모형 정립, 청람어문교육, 3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135~172.
- 이두원(2008), 한국 대학생의 디베이트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 : CEDA 포맷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6권 1호,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79~100.
- 이정옥(2008),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 전은주(2003), 말하기·듣기 영역 수행평가의 방법 : 토론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어문교육 27, 한국어문교육학회, 39~65.
- 조은순(2005), 인터넷 CEDA 토론 모델 연구,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300~309.
- 한상철(2006),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의 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태완(2002),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덕웅(2001), 한국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1, 한국심리학회, 1~40.
- Nisbett, R.E.(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Brockman.

[국문 초록]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김평원

CEDA 방식 토론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가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서로 타협하면서 의미를 창조해 가는 상호 교섭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CEDA 방식 토론과 형식과 내용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과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이라는 방법론을 구안하였다. 마이크로 토론은 CEDA 방식 토론의 각 단계를 10분 내외로 축소하여 토론의 절차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며, 매크로 토론은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한국형 논쟁 문화를 미국의 CEDA 방식 토론과 접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크로 토론은 이황과 기대승이 8년간 9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펼쳤던 사단칠정논쟁과 같은 방식의 텍스트 기반 토론으로 이른바 ‘마라톤(marathon) 토론’이다.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이 토론의 절차를 익히기 위해 실제 토론을 축소한 것이라면,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은 토론의 논증 구조를 익히기 위해 실제 토론을 텍스트를 기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CEDA 방식 토론의 논증 수준을 높여 토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있다.

※ 핵심어 : 매크로 토론, 마이크로 토론, 매크로 토론 기반 학습, CEDA 방식 토론, 토론에 대한 학습.

[Abstract]

Debate Education of CEDA Method Using Macro debate Based Learning(MDBL)

Kim, Pyoung-won

In the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debating model, students make active use of listening and writing skill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he listeners and the speakers reach a compromise and create a meaning through the debating model.

I have designed the 'Micro Debate' and the 'Macro Debate' method as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of the CEDA debating model. The Micro Debate model let students learn the procedures of debate from the curtailed CEDA debating model where each step is reduced to 10 minutes. The Macro Debate model is combination of the CEDA model and the text based debate that Koreans prefer.

This study suggests the Macro Debate which is based on what is called 'marathon discussion' of Lee Hwang and Lee Yee of Chosun Dynasty. They wrote 9 letters of debate to each other for 8 years. In the Micro Debate, the real debate is reduced to show the procedures of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the Macro Debate is an extended form which is based on text. It is designed for students to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argumentation and refu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represents a specific learning model for acquiring high level argumentation method of the CEDA,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it.

※ key words : Micro debate, Macro Debate, MDBL(Micro Debate Based Learning), debating model, learning about debate.